

영웅의 정기연주회

CONDUCTOR
MARKUS STENZ

지휘 마르쿠스 슈텐츠

PIANO
DMITRY SHISHKIN

피아노 드미트리 시쉬킨

KBS교향악단
제816회 정기연주회

2025.7.18. FRI 20:00 롯데콘서트홀

KBS S.O. 816th

모두가 즐기는 공연, 여러분의 배려로 시작됩니다.

휴대전화의 전원을 종료하거나
무음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주변 관객을 위해 공연 중
일행과의 대화를 삼가주세요.

음악이 잠시 멈추는 악장과 악장 사이에는
박수를 자제해주세요.

연주에 방해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사진 촬영은 공연이 끝난 후
커튼콜에만 가능합니다.

Program

라벨 M. Ravel	볼레로 Boléro	⌚ 13'
----------------	---------------	-------

프로코피예프 S. Prokofiev	피아노 협주곡 제3번 C장조, 작품 26 Piano Concerto No.3 in C Major, Op. 26	⌚ 27'
------------------------	--	-------

I. Andante - Allegro
느리게 - 빠르게 (9')

II. Andantino
조금 느리게 (9')

III. Allegro ma non troppo
빠르게, 그러나 너무 빠르지 않게 (9')

인터미션	Intermission	⌚ 15'
------	--------------	-------

쇤베르크 A. Schönberg	펠레아스와 멜리장드, 작품 5 Pelleas und Melisande, Op. 5	⌚ 41'
----------------------	--	-------

⌚ 총 소요시간 : 약 110분 (인터미션 포함)

* 총 소요시간은 현장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 상기 프로그램 및 출연진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CONDUCTOR MARKUS STENZ

지휘 마르쿠스 슈텐츠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지휘자 중 하나로 평가받는 마르쿠스 슈텐츠는 2024/25 시즌에 오랜 파트너인 쾰른 귀르체니히 오케스트라와 네덜란드 방송 관현악단과 다시 무대에 오르며, 디트로이트 교향악단과 베이징 NCPA 오케스트라 등 유수의 오케스트라를 다시 지휘한다.

오페라에 있어서는 항저우에서 <지크프리트>를 지휘했고, 피렌체의 마조 무지칼레에서 헨체의 <젊은 공자>의 새 프로덕션을 지휘했다. 베니스의 라 페니체 극장과 슈텐츠의 오랜 인연은 쿠르트 바일의 <주연배우>의 새 프로덕션으로 새로운 결실을 맺었다.

마르쿠스 슈텐츠는 네덜란드 방송 관현악단의 수석지휘자, 볼티모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 객원지휘자를 거쳐 최근에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수석객원지휘자 등 다수의 중요 직책을 역임했다. 그는 11년 동안 쾰른 시 음악감독 겸 쾰른 귀르체니히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로 재직하며 모차르트의 <돈 조반니>, 바그너의 <반지> 사이클과 <로엔그린>, <탄호이저>,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아나체크의 <예누파>와 <카타 카바노바>, 외트비시의 <사랑과 다른 악마들>을 지휘했다.

슈텐츠는 1988년 베니스의 라 페니체 극장에서 오페라 데뷔를 했고, 라 페니체 극장 오케스트라와 함께 2022/23 시즌 바그너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의 새 프로덕션을 포함해 성공적인 무대를 다수 올렸다. 예정된 프로젝트로는 <낙소스 섬의 아리아드네>와 <로엔그린>이 있다.

2018년 슈텐츠는 뮌헨 바이에른 국립 오페라 극장에서 슈레커의 <낙인찍인 자들>을 지휘했다. 같은 해에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에서 쿠르타그의 <승부의 끝>을 세계 초연했고, 같은 곳에서 슈트라우스의 <엘렉트라>를 지휘했다. 이어서 네덜란드 국립 오페라에서 쿠르타그의 작품을 지휘했고, 이 파리 국립 오페라와 프랑스 초연 무대를 올렸다.

최근의 교향악 연주로는 로마의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오케스트라와의 첫 무대를 포함해 뉴 재팬 필하모닉과 여러 차례 연주했고, 이전에 직책을 맡은 바 있는 네덜란드 방송 관현악단과 서울시립교향악단, 쾰른 귀르체니히 오케스트라 등 세 오케스트라도 여러 차례 지휘했다. 특히 귀체르니히 오케스트라와는 '시즌 최고 콘서트 프로그램 상'을 수상했고, 'Experiment Klassik'이나 '3. Akt' 등 젊은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젝트나 실황녹음 프로그램 'GO live'를 시작했다.

그의 광범위한 디스코그래피에는 쾰른 귀체르니히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전곡을 녹음한 앨범(특히 교향곡 제5번 녹음은 독일 음반 비평가 상 수상)을 비롯해 다수의 수상작이 포함되어 있다. 슈트라우스의 <돈 키호테>와 <틸 오일렌슈피겔의 유쾌한 장난> 앨범은 압도적 호평을 받았고, 이어 2015년에 발매된 쇤베르크의 <구레의 노래> 녹음 역시 큰 성공을 거둬 2016년 그라모폰 어워드 합창 부문에서 수상한 바 있다.

마르쿠스 슈텐츠는 쾰른 국립 음악대학에서 폴커 방겐하임을 사사했고, 탕글우드 음악센터에서 레너드 번스타인과 오자와 세이지를 사사했다. 슈텐츠는 영국 맨체스터 왕립북부음악원의 명예 펠로우십과 독일 노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에서 수여하는 '은 소리굽쇠'를 수상했다.

PIANO

DMITRY SHISHKIN

피아노 드미트리 시쉬킨



“맑고 명확한 패시지워크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프레이징에 대한 섬세한 상상력이다.

익숙한 레퍼토리를 넘어설 수 있는 피아니스트라는 좋은 증거다.” <그라모폰>

제16회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은상을 수상하고 제73회 제네바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드미트리 시쉬킨은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음악 해석으로 인정받고 있다. 비평가들은 시쉬킨을 “엄청난 음악적 진정성과 엄격함을 가졌으며, 화려함으로 관객을 흥분시키는 피아니스트”로 정의한다.

드미트리 시쉬킨의 최근 및 예정 연주로는 빈 무직페어라인에서 연주하는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협주곡 무대를 포함해 조나선 노트가 지휘하는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 가보르 타카치 나지가 지휘하는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페트르 포펠카가 지휘하는 프라하 방송 교향악단과 협연 무대를 가지며, 한국과 대만에 서의 리사이틀 투어, 카타니아 벨리니 극장과 위그모어 홀, 베르비에 페스티벌에도 참여한다.

시쉬킨은 바르샤바 필하모닉, 벨기에 국립 관현악단, 바이마르 국립 관현악단, 도쿄 심포니 오케스트라, 마린스키 극장 오케스트라, 스베틀라노프 국립 교향악단,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 차이콥스키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스탄불 국립 교향악단, 마시모 벨리니 극장 오케스트라, 케이프타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바 있다.

시쉬킨은 베르비에, 라 로크 당테롱, 두브로브니크 여름 페스티벌, 몽펠리에 라디오 프랑스 페스티벌, 베르겐 페스티벌, ‘쇼팽과 그의 유럽’ 페스티벌, 베르가모 브레시아 음악 페스티벌 등 권위 있는 페스티벌에 자주 초대되었으며, 다니엘 로자코비치와 장 에프랑 바부제 등의 아티스트와 협업했다.

시쉬킨은 현재 스위스에 거주하고 있다. 모스크바 그네신 음악원에서 미하일 호클로프에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음악원에 진학해 엘리스 비르살라제를 사사했으며, 이후 시칠리아에서 카타니아 빈첸초 벨리니 국립 음악원에서 에피파니오 코미스를, 하노버 음악대학교에서 아리에 바르디를 사사했다.

라벨 M. Ravel	볼레로 Boléro
작곡연도	1928년
초연	1928년 11월 22일, 프랑스 파리
편성	플루트 2(2nd 플루트 피콜로2를 겸함), 피콜로, 오보에 2(2nd 오보에 오보에 다모레를 겸함), 잉글리시 호른, 클라리넷 2(2nd 클라리넷은 Eb클라리넷을 겸함), 베이스 클라리넷, 바순 2, 콘트라바순, 호른 4, 트럼펫 3, 피콜로 트럼펫, 색소폰 2(소프라노색소폰, 테너색소폰), 트롬본 2, 베이스 트롬본, 팀파니, 스네어드럼 2, 심벌즈, 탐탐, 베이스드럼, 하프, 첼레스타, 현 5부
연주 시간	약 13분

모리스 라벨은 1928년 러시아 출신의 안무가 이다 루빈시테인에게 신작 발레를 위촉받았다. 라벨이 이에 응해 쓴 곡이 ‘볼레로’로, 작곡은 같은 해 7월부터 10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원래 제목은 ‘판당고’였으나 나중에 ‘볼레로’로 바꾸었다. 둘 다 스페인 춤곡이고 기본 박자는 같지만 템포와 장단이 약간 다르다는 차이가 있다. 여기사 짐작할 수 있듯이 이 곡은 전통적인 볼레로와는 세부적인 면에서 좀 다르지만, 라벨의 곡이 워낙 큰 인기를 끈 덕에 오늘날에는 볼레로라는 춤곡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인식된다. 원래는 발레 음악으로 쓴 곡이었지만, 오래잖아 연주회용 레퍼토리로 자리잡았다. 초연은 같은 해 11월 22일 파리 오페라 극장에서 이루어졌으며, 처음부터 성공을 거둔 데다 당시 유행하던 온갖 물품에 ‘볼레로’라는 단어가 붙는 등 그야말로 한 시대를 풍미한 곡으로 자리잡았다.

냉소적인 성격이었던 라벨은 이 곡이 거둔 대성공에 썩 열광하지 않았다. 하지만 단순한 짜임새 속에 악기가 점차 가세하면서 음색이 변화하는 양상을 절묘하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마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라벨의 뛰어난 관현악법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다. 의외로 연주하기 힘든 곡으로도 악명이 높다. 특히 작은북 주자에게는 악몽이 따로 없는데, 맨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같은 리듬으로만, 그것도 꼭 크레센도(점점 세게)로 연주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작은북의 리듬에 실려 플루트가 처음으로 선율을 제시하고, 이어 클라리넷, 바순, 피콜로 트럼펫, 오보에 다모레 등의 순서로 악기들이 하나둘씩 가세한다. 선율은 내내 그대로 유지되다가 최후의 몇 마디에 이르러서야 모습을 바꾸가 그대로 무너지듯이 마무리를 유지하면서도 악기들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관파악하기 좋은 작품이기도 하다.



라벨이 볼레로를 작곡하던 모습을 재구성
(AI를 활용한 이미지 재구성)

프로코피예프 S. Prokofiev	피아노 협주곡 제3번 C장조, 작품 26 Piano Concerto No.3 in C Major, Op. 26
작곡연도	1917년~1921년
초연	1921년 12월 16일, 미국 시카고
편성	독주 피아노, 플루트 2(피콜로 1대를 겸함),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호른 4, 트럼펫 2, 트롬본 2, 베이스 트롬본, 팀파니, 베이스드럼, 심벌즈, 캐스터네츠, 탬버린, 현 5부
연주 시간	약 27분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가 쓴 피아노 협주곡은 총 다섯 개이며, 이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널리 연주되는 곡은 ‘제3번’이다. 프로코피예프는 1913년에 이 협주곡을 쓰기 시작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작곡을 중단했다. 1916~17년에도 몇 차례 손을 대었지만,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자 부유층 출신이었던 프로코피예프는 거취를 고민하다가 결국 1918년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는 미국에서 콘서트 피아니스트로 활동했으나, 작곡한 작품은 유럽에서 발표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자주 대서양을 건넜다.

프로코피예프가 ‘피아노 협주곡 제3번’에 매진하기 시작한 것은 1921년 여름, 브르타뉴에 머물던 시기부터였다. 그는 파리로 돌아간 뒤 작품을 완성했고, 같은 해 12월 16일 시카고에서 열린 초연에서는 직접 피아노 파트를 맡아 프레데릭 슈토크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프로코피예프는 애초에 이 곡을 직접 연주해 돈을 벌 생각으로 자신의 기량에 적당히 맞춰 썼으나, 초연을 앞두고는 친구에게 “알고 보니 엄청나게 어렵다. 걱정돼서 날마다 두 시간씩은 연주하고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초연은 미지근한 수준의 호평만 받았고, 이 곡이 본격적으로 명성을 얻기 시작한 것은 1922년, 세르게이 쿠세비츠키가 파리에서 지휘한 공연부터였다. 다만 이때도 청중만 열광했을 뿐, 스스로 아방가르드의 최전선에 서 있다고 자부하던 파리의 비평가 상당수는 작품이 ‘너무 보수적’이라고 평했다고 한다.



1921년 시카고에서 본인의 피아노 협주곡 제3번을 초연하는 프로코피예프의 모습을 상상하여 재현한 그림
(AI를 활용한 이미지 재구성)

I. Andante - Allegro

제1악장은 클라리넷 독주가 길고 서정적인 선율을 연주하는 ‘Andante’(느리게) 서주로 시작하며, 머잖아 현악기군이 앞을 향해 줄달음치면서 주부인 ‘Allegro’(빠르게) 단락을 연다. 1주제는 경쾌하고 날렵한 반면 2주제는 훨씬 불협화음이 많고 음조가 모호하다. 발전부는 주로 서주 주제에 기초하고 있으며, 재현부를 거쳐 끝난다.

II. Andantino

제2악장은 작곡가가 특유의 서정성을 여실히 발휘한 악장이다. 플루트와 클라리넷이 제시하는 ‘Andantino’(조금 느리게) 주제는 가보트풍이며, 여기에 다섯 개의 변주가 파생해 나온다. 참고로 프로코피예프는 바로크 시대에 유행한 춤곡의 일종인 가보트를 유난히 좋아해 ‘교향곡 제1번’(고전 교향곡)이나 발레 ‘로미오와 줄리엣’ 등 여러 곳에서 다루었다. 첫 번째 변주 ‘리스테소 템포’(같은 빠르기)는 피아노가 폭넓은 표현으로 주도하며, 다소 창백한 느낌을 준다. 두 번째 변주 ‘알레그로’(빠르게)는 다소 호전적인 흥겨움을 보여주며, 피아노 역시 화려한 질주로 흥을 보탠다. 세 번째 변주 ‘알레그로 모데라토’(적당히 빠르게)는 주제를 해체해 파편화한 형태로 제시하며, 거칠고 충동적인 분위기를 띤다. 반면 네 번째 변주 ‘안단테 메디타티보’(걷는 빠르기로 명상적으로)는 피아노와 오케스트라의 차분한 대화이다. 다섯 번째 변주 ‘알레그로 주스토’(적절한 빠르기)는 당당한 느낌으로 진행되며, 여기에 코다가 붙어 악장을 쓸쓸한 느낌으로 마무리한다.

III. Allegro ma non troppo

제3악장 ‘Allegro ma non troppo’(빠르게, 그러나 지나치지 않게)는 론도 형식이며, 프로코피예프 자신이 독주자와 오케스트라 사이의 ‘논쟁’이라고 부른 바 있다. 다소 엉큼하게 들리는 관현악과 화려하고 과시적인 독주가 대비를 이루면서 시작하며, 이 부분이 론도의 주제부를 이루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된다. 이 사이에는 화려하고 정력적인 첫 번째 에피소드와 다소 울적한 느낌을 주는 두 번째 에피소드가 등장한다. 다시 주제부로 돌아와 다양한 기교를 보이면서 악상이 화려함을 더해가다가 돌진하는 듯한 느낌으로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대목에서 작곡가는 피아노를 일종의 타악기로 다루고 있다.

오늘 공연에 대한 연주자의 생각이 궁금하세요?

KBS교향악단 유튜브 채널에서 직접 전하는 쉽고 재미있는 해설 영상을 만나보세요!

 YouTube **KBS교향악단** 



쇤베르크

A. Schönberg

펠레아스와 멜리장드, 작품 5

Pelleas und Melisande, Op. 5

작곡연도 1902년~1903년

초연 1905년 1월 25일, 오스트리아 빈

편성 플루트3(3rd 플루트는 피콜로를 겸함), 피콜로, 오보에3(3rd 오보에는 잉글리시 호른을 겸함), 잉글리시 호른, 클라리넷 3(3rd 클라리넷은 베이스 클라리넷을 겸함), 베이스 클라리넷, Eb 클라리넷, 바순 3, 콘트라바순, 호른 8, 트럼펫 4, 알토 트롬본, 트롬본 3, 베이스 트롬본, 튜바, 팀파니2, 글로켄슈필, 테너 드럼, 트라이앵글, 탐탐, 심벌즈, 베이스 드럼, 서스펜디드 심벌, 하프2, 현 5부

연주 시간 약 41분

벨기에의 시인 겸 극작가인 모리스 마테를링크(1862~1949)는 보통 동화(원래는 희곡이다) ‘파랑새’를 쓴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작품 가운데는 문학적으로 더 중요한 것들이 적지 않으며 1892년에 쓴 희곡 ‘펠레아스와 멜리장드’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이 희곡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압축하자면 다음과 같다. 가상의 왕국 알르몽드는 아르켈이라는 늙은 왕이 다스리고 있다. 왕의 손자 골로는 사냥 도중에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멜리장드라는 신비한 여인을 만나 성으로 데려온 뒤 아내로 삼는다. 그러나 멜리장드는 골로의 배다른 동생 펠레아스와 사랑에 빠지고, 이 사실을 안 골로는 질투에 미쳐 펠레아스를 죽인다. 골로는 나중에야 둘의 사랑이 순전히 정신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후회하지만 돌이킬 수 없다. 한편 멜리장드도 딸을 낳다가 죽는다.

이렇게만 보면 이 희곡은 삼각관계로 어그러지고 마는 비극적인 가정사를 다룬 여느 통속극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그러나 마테를링크는 대단히 신비로운 분위기와 모호하고 상징적인 대사로써 자신의 작품에 독특한 입지를 부여했다. ‘펠레아스와 멜리장드’의 등장인물 가운데 악인은 하나도 없으며, 모두 운명에 휘둘리는 나약한 존재일 뿐이다. 이 희곡은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아 19세기 말에 쏟아져 나온 여러 상징주의 희곡을 대표하는 입지를 얻었으며, 마테를링크가 1911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데 간접적으로 기여했다.

적잖은 작곡가가 이 작품에 매료되어 음악화를 시도했는데, 작곡가마다 서로 다른 장르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꽤 흥미롭다. 드뷔시는 자신의 유일한 오페라 소재로 이 희곡을 골랐고, 포레와 시벨리우스는 극부수음악을 썼으며 아르놀트 쇤베르크는 교향시를 작곡했다. 포레의 극부수음악이 제일 빨라 1898년에 나왔고, 드뷔시의 오페라는 1902년, 시벨리우스의 극부수음악은 1905년에 나왔으며 쇤베르크의 교향시는 드뷔시보다 조금 늦게 1903년에 발표되었다. 쇤베르크는 이 곡을 쓸 당시 드뷔시가 같은 소재로 오페라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이는 ‘펠레아스와 멜리장드’가 당대 지식인 사이에 유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쇤베르크 역시 처음에는 이 작품을 오페라로 쓰려 했으나, 자신이 추구하는 새로운 음악을 시도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해 교향시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 곡은 단 하나의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악상 지시에 따라 열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작곡가의 제자 출신인 알반 베르크는 이 작품을 4악장 교향곡 형식에 맞춰 설명하기도 했다.

이 곡은 쇤베르크가 아직 무조로 나아가기 전에 쓴 곡으로, ‘구레의 노래’나 ‘정화된 밤’처럼 후기낭만적인 성향을 보인다. 이 작품은 조성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폭넓고 모호하며, 쇤베르크는 몇 가지 주요 동기로 전곡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이 모호함을 극복하고자 했다. 이는 바그너의 유도동기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여러 후기 낭만 작곡가가 즐겨 사용한 방식이다. 관현악법의 측면에서도 대단히 풍부하며, 작곡가는 다양한 음색과 연주 기법을 활용해 이를 한층 돋보이게 했다.

이 곡은 부드럽게 시작한 뒤 현악기군을 중심으로 신비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여기서 멜리장드를 상징하는 주제가 나온다. 한편 펠레아스의 주제는 목관악기를 중심으로 연주되며, 둘의 만남은 부드럽고 섬세한 선율로 표현된다. 곡이 진행되면서 두 주제는 서로 얹히고 섞이며, 이로써 두 사람의 감정이 점차 고조되는 것을 드러낸다. 그러다가 펠레아스가, 그리고 이어 멜리장드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특히 멜리장드의 죽음은 현악기의 강렬한 화음과 긴장감 넘치는 리듬이 두드러져 매우 극적으로 표현된다. 결국 두 주인공의 비극적인 사랑은 남은 사람들의 애도와 함께 조용하고 안타까운 분위기로 마무리되며, 처음 소개된 주제들이 두 사람을 회상하듯 등장해 작품 전체의 순환 구조를 완성한다.

글 | 황진규 (음악 칼럼니스트)



쇤베르크가 펠레아스와 멜리장드를 집필하던 시기를 상상하여 그린 그림
(AI를 활용한 이미지 재구성)

모집부문	채용부문	직책	인원
	제2바이올린	단원	1
	클라리넷	부수석	1
	호른	부수석	1
		단원	1
	합계		4

세부일정	채용 공모기간	2025. 6. 19.(목) ~ 2025. 7. 28.(월) 17:00
	지원서 접수	2025. 7. 18.(금) ~ 2025. 7. 28.(월) 17:00
	실기전형	1차 2025. 8. 7.(목) ~ 2025. 8. 12.(화) 중 2차 2025. 8. 25.(월) 예정
	면접	실기전형 통과자에 한해 추후 일정 확정

문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www.kbssymphony.org
 그 외 문의 사항은 kbssoaudition@gmail.com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KBS교향악단 연주회 일정 등에 따라 실기전형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 교향악단과 함께하는 제9회 여수음악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기원

2025. 8. 30. SAT — 9. 6. SAT

개막연주회

마에스트로 정명훈의
‘환상교향곡’

8.30. SAT 17:00 GS칼텍스 예술마루 대극장
정명훈(지휘), 후지타 마오(피아노), KBS교향악단

명품 클래식 시리즈 2

팬텀싱어 우승자
테너 유채훈의 ‘Solus’

9.3. WED 19:30 GS칼텍스 예술마루 소극장
유채훈(성악가), 권지수(피아노)

찾아가는 음악회

7.8. TUE - 9.2. TUE 여수 지역 일대 KBS교향악단 실내악팀, 여수음협양상블

가족음악회

백윤학 지휘자와 함께하는
패밀리 판타지 콘서트

8.31. SUN 17:00 GS칼텍스 예술마루 대극장
백윤학(지휘), 서울패스티벌오케스트라

명품 클래식 시리즈 3

한국을 대표하는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의 ‘토크 콘서트’

9.5. FRI 19:30 GS칼텍스 예술마루 소극장
사무엘 윤(성악가), 정태영(피아노)

명품 클래식 시리즈 1

프랑스 정통 피아니스트
장 에프랑 바부제의 ‘The French’

9.2. TUE 19:30 GS칼텍스 예술마루 소극장
장 에프랑 바부제(피아노)

폐막연주회

카바코스의 ‘쇼스타코비치’

9.6. SAT 17:00 GS칼텍스 예술마루 대극장
레오니다스 카바코스(지휘), 문지영(피아노)
제9회 여수음악제 음악학교 수료생, KBS교향악단

PIANO
MAO FUJITA

피아노 후지타 마오

KBS

S.O.

CONDUCTOR
MYUNG-WHUN CHUNG

지휘 정명훈

817th

2025
8.29. FRI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모차르트 / 피아노 협주곡 제25번 C장조, K.503
W. A. Mozart / Piano Concerto No.25 in C Major, K.503

베를리오즈 / 환상 교향곡, 작품 14, H.48
H. Berlioz / Symphonie Fantastique, Op.14, H.48

대한민국 교향악단의 자존심 KBS교향악단!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1956년 창단되어 수준 높은 연주를 통해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 발전을 선도해 왔다. 임원식 초대 상임지휘자를 시작으로 홍연택, 원경수, 오토마 마가, 정명훈, 드미트리 키타옌코, 요엘 레비, 피에타리 잉키넨 등 세계 최정상급 지휘자들이 KBS교향악단을 이끌었다. 2012년에는 전문예술경영체제를 갖춘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여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언제 어디서나 감동을 전하는 국민의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교향악부터 실내악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통해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수준 높은 연주를 들려주는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시즌 및 주제별로 관객과 소통하는 초청, 기획연주회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까지 매년 100회 이상의 공연으로 10만 명이 넘는 관객에게 고품격 음악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공연 현장에 함께할 수 없는 관객을 위해 KBS교향악단의 연주는 KBS TV와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중계되며, 공연 외에도 방송프로그램 및 쿠크르 사업, 지역과 연계한 음악제, 기업 후원의 공익연주회 등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국민의 교향악단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

K-클래식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는 콘텐츠 허브 교향악단

2018년 ‘도이치 그라모폰(DG)’에서 실황음반을 발매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체코슬로바키아 건국 100주년 기념연주회, 2019년 한국 폴란드 수교 30주년 기념 순회공연과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페어아인 황금홀 특별연주회를 연이어 개최하였고, 2023년에는 영국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공식 연주 평가에서 5점 만점을 기록하였다. 2024년 8월에는 폴란드 쇼팽 협회와 체코 브르노 슈필베르크 페스티벌에 아시아 오케스트라 최초로 초청받아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

KBS교향악단은 디지털 콘텐츠를 선도하며, 코로나 시대에 무관중 공연으로 2만 3천여 명의 실시간 관람 기록을 세우고, ‘디지털 K-Hall’ 아카이브를 오픈하여 고품격 음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내 교향악단 최초로 유튜브 구독자 수 10만 명을 돌파하여 실버 버튼을 받은 후, 현재는 구독자 수가 18만 명을 넘어 아시아 1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KBS교향악단은 언제나 차별화된 연주와 창의적인 기획을 통해 국민과 공감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클래식 문화브랜드로 함께 할 것이다.

사장

이승환

단원

제1바이올린

최병호 ^{부악장} 반선경 ^{수석} 유신혜 ^{부수석} 김혜은 황미령 김희진 권혁진 최혜진 강내윤 오지은 유지인 이소윤 설현선 김지현 김선우 선승미 신예은 신지현

제2바이올린

권민지 ^{수석} 임정연 ^{부수석} 안지현 ^{부수석} 유주현 김진아 이윤경 박소현 박정원 김은근 이조해 박서현 최여은 이유진

비올라

진덕 ^{수석} 한넬리 ^{부수석} 박세란 최진미 김지우 유민형 임나유 석지영 박새롬 변은혜 유우정

첼로

김우진 ^{수석} 윤여훈 ^{부수석} 양윤정 김현정 김소영 정세은 장현경 김신애 유소향 안예진

더블베이스

이창형 ^{수석} 김남균 ^{부수석} 안수현 ^{부수석} 양현주 유주연 장한별 강창대 곽민재

플루트

김태경 ^{부수석} 이철호 전서영

오보에

이지민 ^{수석} 김종아 ^{부수석} 조성호

클라리넷

박한 양수현

바순

박준태 ^{수석} 고주환 ^{부수석} 김소연 정순민

호른

정희찬 조세영 조현우

트럼펫

남관모 ^{수석} 김주원 ^{부수석} 정용균 김승헌

트롬본

김성수 ^{부수석} 윤지연

베이스트롬본

정다운

튜바

Norito Usui

팀파니

이원석 ^{수석}

타악기

Jason Yoder ^{수석} 장세나 Matthew Ernster

하프

김서원

객원수석

악장

Markus Wolf (바이에른 슈타츠오퍼 악장)

제1바이올린

박강현 ^{부수석}

플루트

안명주 ^{수석}

클라리넷

문빛찬 ^{수석} 김우진 ^{부수석}

호른

Jimmy Charitas ^{수석}

트롬본

Nick Platoff ^{수석}

사무국

사무국장

신승원
대외협력실장 김원재

공연기획팀

팀장 손유리 차장 김지민 과장 성채은 대리 전현정 최난희 사원 허효정 인턴 전의범 황세빈
공연지원파트 (악기담당) 단원 유재식 정오준 (악보담당) 과장 장동인

공연사업팀

팀장 강길호 차장 이한신 과장 이미라 PD 서영재 사원 차하영 장태형

경영관리팀

팀장 손대승 차장 유연철 유정의 박연선 사원 윤자윤

KBS교향악단 후원회

KBS교향악단 후원회는 소중한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KBS교향악단이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세상과 더욱 폭넓게 나누고, 세계적인 교향악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후원회원에게는 풍성한 혜택과 함께 KBS교향악단 가족의 일원으로서 다채로운 행사 참여 기회와 교류의 장이 주어집니다. 1956년 창단한 역사와 전통의 KBS교향악단 새로운 후원회에 적극적인 동참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등급	정가	기간	등급별 혜택
Symphony	1억원 이상	10년	- 해외연주회 동반 (2인 항공 포함, 교통/숙박 제공) - 스페셜 클래스 (후원인 관련 기관/단체 위한)
Concerto	3천만원 이상	5년	- VIP 만찬 - 지역연주회 동반 (2인 교통, 숙박 제공/연 1회)
Cantata	1천만원 이상	2년	- VIP 만찬 - KBS교향악단 명예의 전당 명단 게재
Nocturne	5백만원 이상	1년	- 공연장 VIP라운지 이용 (환담 및 다과) - 후원의 밤 행사 초청 - 정기연주회 백스테이지 투어
Prelude	1백만원 이상	1년	- KBS교향악단 발간물 우편발송 - 연주 Lecture 초청 - 특별연주회 초청 (후원인을 위한 특별연주회) - 교향악단 투어 (KBS연습실 리허설 참관/연 1회)
Etude	1십만원 이상	1년	- 공통혜택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티켓 20% 할인)

후원회 공통혜택

- 정기연주회 초대 (Prelude 등급 이상)
- 기부금영수증 발행 (소득공제 가능)
- 정기·기획연주회 티켓 20% 할인 (공연당 1인 2매)
- KBS교향악단 뉴스레터 온라인 서비스, 웹진 발송
- KBS교향악단 기념품 제공
- 리허설 참관 초청 (Etude 등급은 연1회, 상위등급은 추가기회 제공)
-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북 후원명단 게재 (Etude 등급은 홈페이지 게재)

* 후원회원 간 공식 행사 외 네트워크 유지되도록 행정 지원

* 기존 후원회원은 해당 종료기간까지 기존 혜택 유지

프렌즈클럽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회원) 메일링 서비스 및 웹진 발송

KBS교향악단(‘kbssoforever’) 또는 Facebook.com/kbssymphony 가입자 대상

후원회 가입 문의

072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 Tel 02-6099-7407, 010-4932-3061
andy@kbssymphony.org



KBS교향악단 이사회

이사장	이건수 (주)동아일렉콤 회장	이사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감사	남유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상임이사	이승환 KBS교향악단 사장		김덕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주) 회장
			이우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은 KBS 시청자센터장
			한경천 KBS 예능센터장
			김병진 KBS 라디오센터장

후원회 명단

Concerto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김덕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주) 회장 김인호 전)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정수 (주)제이에스앤에프 회장 백정호 동성그룹 회장 이영애 배우 이학노 슈퍼월드교역(주) 회장 최원석 비씨카드(주) 대표이사 허남선 (주)우성플라테크 명예회장 NH-Amundi자산운용	Nocturne	교보문고 국은주 김동진 금양식품(주) 대표 김영기 변호사 이종일 H&O 코리아 대표 이항일 (주)하어스엠 대표 정옥선 (주)세이프케미컬 대표 NH투자증권
Cantata	고중제 (주)이소프팅 대표이사 권오현 전)삼성전자 회장/현 삼성전자 상근고문 구자관 (주)삼구INC 회장 김명환 (주)덕신하우징 회장 김효수 (주)효석 대표 문양호 (주)동영관광 대표 민성우 에스엠글로벌코리아(주) 대표이사 박은관 (주)시몬느 회장 박정욱 전)KBS교향악단 사장 서봉준 (주)동림유화 대표 설명수 석교실업 회장 신한투자증권 안국약품(주) 오영환 (주)브라잇썸 대표이사 유승원 동우교역 대표 윤만호 EY한영회계법인 경영자문위원회 회장 이운세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이재영 L&T렉서스 회장 이충희 (주)듀오 회장 장덕수 (재)우민재단 이사장 정진학 유진기업 사장 최명배 (주)엑시콘 사장 허승현 PHA 사장 한국산업은행	Prelude	곽득욱 아주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 김도영 변호사 김승중 전)KBS감사 김영선 KBS PD 김영철 배우 김용 김은영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대외협력 이사 김종운 김진오 변호사 김한나 변호사 김희연 전)KBS교향악단 첼로 단원 노기용 박상현 (주)발렉스 대표이사 박옥균 배홍기 PKF 서현회계법인 대표이사 양영은 KBS 앵커 오지연 변호사 유수엽 유순신 (주)유엔파트너즈 대표 윤종효 쉐리코리아 컴퍼니(유) 대표이사 윤혜원 전)KBS교향악단 오보에 단원 이지민 영인과학(주) 대표이사 장희용 변호사 장희진 올리브클래식 대표 전병을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승환 변호사 정용실 정인재 (주)초록숲 대표 조명현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연구교수 조용상 가천대학교 교수

CONDUCTOR
GEMMA NEW

지휘 젤마 뉴

번스타인 / 캔디드 서곡
L. Bernstein / Candide Overture
아담스 / 색소폰 협주곡 *한국 초연
J. Adams / Saxophone Concerto *Korean premiere
코플랜드 / 교향곡 제3번
A. Copland / Symphony No.3

SAXOPHONE
JESS GILLAM

색소폰 제스 길럼

2025
9.25. THU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VIOLIN
RANDALL GOOSBY

바이올린 랜들 구스비

차이콥스키 /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35
P. I. Tchaikovsky /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35
라흐마니노프 / 교향곡 제3번 a단조, 작품 44
S. Rachmaninoff / Symphony No.3 in a minor, Op.44

CONDUCTOR
PETER OUNDJIAN

지휘 피터 운지안

2025
10.17. FRI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Life ON Sealy

시간이 흐를수록
세대를 거듭할수록
선명해지는 가치가 있다
144년 당신을 지지해온
섀리 포스터피딕
Life ON Sealy

KBS  **교향악단**
KBS Symphony Orchestra

Ⓐ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 02-6099-7400

ⓕ 02-6099-7416

Ⓚ www.kbssymphony.org

ⓕ facebook.com/kbssymphony

☎ 플러스친구 KBS교향악단 (혹은 'kbssoforever')

Ⓜ [kbssymphonyorchestra](https://instagram.com/kbssymphonyorchestra)

Ⓜ youtube.com/@KBS_Symphony_Orchestra